

# 87년을 보내면서 동물약품업계를 돌아본다

- 일시: 1987년11월23일(월) 오후2시
- 장소: 본회의의실
- 참석자: 박종영(중앙케미칼 전무)  
          송기홍(다나가축약품사장)  
          오경록(천호부화장 상무)
- 사회: 노영한(본지 편집국장)
- 정리: 김용화(본지 기자)

사회: 87년 한해동안 양계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복경기 이후 장기불황이 업계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동물약품업계 또한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한해를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동물약품업계의약품판매현황과 약사행정 그리고 유통구조, 신제품, 물질특허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동물약품 외형은 790억 밖에 안돼

박종영: 국내에서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사료공장이 13개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내에 30여업체, 수입약품상사 16개업체입니다. 이중 사료업체를 포함 규모가 큰 업체는 14군데 정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총매출액이 790억으로 각각 30%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약품별로는 판매 실정이 어떻습니까?

## 항생제와 영양제가 주종

박종영: 주로 항생제, 비타민제, 아미노산제, 항콕시들펀제로 매년 30%씩 증가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1), 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다음은 약사행정 문제로 울림픽을 앞두고 항생제 및 발암성물질등의 축산물 잔류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박종영 전무

## 약품의 계산물 잔류에 특별한 주의를

오경록: 앞으로 이문제는 사료 동물약품 양축가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이 최근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식품에 비해서는 양호도가 약간 낮았으나 기준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회: 사료비 절감을 위해 영양제는 사료회사에서 직접 취급을 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관리는 가축위생과에서 하더라도 판매용이 아닌 자체사용일 경우는 허가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타민제의 비중이 커서 이렇게 된다면 동물약품업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종영: 일본은 사료첨가제 같은 것은 자체생산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업체에서 실시하겠다는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품업체가 영세하여 문제점이 생깁니다. 현재 첨가제의 마진이 적어 사료회사도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 유통분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가축약



송 기홍 사장

품판매점들이 부도사건도 많다고 하고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일시적 현상입니까? 전체적인 흐름입니까?

표 1) 동물약품의 연도별 생산실적

금액단위: 천원

연도별 제제명	1982			1983			1984			1985			** 1986			*1987상반기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계	33,239,194		100	48,673,084		100	43,521,353		100	59,453,023		100	90,182,022		100	65,157,108		100
비타민제	9,644,062		29	9,852,554		20	7,357,538		17	6,775,863		20	17,859,493		20	12,337,476		19
설과제	1,030,481		3	855,753		2	792,145		2	888,813		1	1,058,094		1	3,058,734		5
항콕시들표제	2,094,408		9	2,740,208		6	2,760,115		6	3,075,186		5	4,338,513		5	3,016,638		5
항원충제	146,195		0.4	149,259		0.3	115,216		0.3	111,893		0.2	121,988		0.1	97,571		0.1
구충제	395,824		1	807,542		2	848,770		2	1,275,344		2	1,516,751		2	483,366		0.7
소독제	632,126		2	1,011,671		2	776,940		2	1,199,905		2	1,431,174		2	1,538,411		2
방충살충제	924,701		3	2,499,982		5	1,454,936		3	1,495,720		3	1,678,446		2	2,997,360		5
항생제	8,254,437		25	11,822,117		24	10,399,697		24	15,233,127		26	17,827,389		20	11,326,182		17
백신	1,528,739		5	2,043,573		4	2,213,010		5	2,460,609		4	2,759,836		3	2,352,258		4
생균. 효소제	508,003		2	373,983		0.7	1,002,859		2	1,547,496		3	2,155,439		2	1,348,943		2
원료	3,543,059		11	5,012,409		10	3,062,145		7	4,929,433		8	26,986,458		30	20,676,456		32
기타	3,727,159		11	11,504,033		24	12,744,982		29	20,459,634		34	12,345,441		14	5,923,713		9
지수	100			146			131			179			271					

\* 1986년까지는 수출액제외, 1987년도 수출액정리가 안되어 있어 1987년 상반기금액은 수출액을 포함함.

\*\* 1986년부터 분류기준이 바뀌어 금액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표 2) 동물약품의 연도별 판매실적

금액단위 : 천원

연도별 제제명	1982		1983		1984		1985		** 1986		* 1987상반기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계	40,579,642	100	57,273,636	100	55,145,163	100	66,119,004	100	81,916,552	100	65,911,194	100
비타민제	11,041,144	27	11,450,918	20	8,410,087	15	8,994,612	14	7,632,746	9	13,214,370	20
항록시듬제	850,108	2	1,061,325	2	1,017,238	2	1,057,783	2	1,521,995	2	2,767,704	4
항원충제	2,456,995	6	3,132,289	5	2,749,523	5	3,256,863	5	4,338,390	5	3,074,058	5
구충제	179,471	0.4	180,216	0.3	123,088	0.2	120,530	.1	116,699	0.1	83,094	0.1
소독제	515,592	1	1,064,528	2	1,162,855	2	1,554,746	2	1,683,860	2	517,806	0.7
방충살충제	830,772	2	1,246,283	2	964,968	2	1,386,834	2	1,675,083	2	1,638,294	2
항생제	1,473,283	4	2,099,114	4	1,820,721	3	1,721,562	3	2,059,842	3	3,262,320	5
백신	10,318,067	25	14,340,885	25	13,239,029	24	17,191,478	26	20,401,141	25	13,374,582	20
생균, 효소제	1,832,448	5	3,012,064	5	3,108,370	6	3,178,047	5	3,375,802	4	1,090,344	3
원료	697,611	2	598,642	1	1,194,234	2	1,722,693	3	2,837,246	3	1,847,711	3
기타	3,693,496	9	5,161,071	9	5,693,528	10	5,259,021	8	10,994,029	13	17,235,708	26
지수	6,688,695	16	13,926,301	24	15,661,522	28	20,674,835	31	25,279,719	31	6,986,203	11
	100		141		136		163		202			

\* 86년도까지는 수출액제외, 1987년도 수출액에 관한 정리가 안된 관계로 1987년 상반기 금액은 수출액 포함.

\*\* 1986년부터 분류기준이 바뀌어 금액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최근 유통업체 부도율 높아

송기홍: 통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대구, 인천 등지에서 시행해 보았으나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판매량은 약 35%가 신장은 됐다고 하지만 사료첨가제로 신장된 것이지 사육수수에 비해서는 필드부분의 약은 줄었다는 견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국은 늘고 약은 팔리지 않았습니니다. 당국에서도 방문판매보다 약국에서 판매하라고 권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면단위까지 판매업소가 생겨 기동력 위주의 판매사업은 경비가 많이 들어 자연스럽게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부터 거론되어온 이야기인데 판매업소에 약사나 수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일반판매원에 의해 약품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약품남용, 오용이 일어나 약해에 대한 거론이 많은데? 그리고 유통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없을까요?

### 약품사용 올바르게 하여 약화 막아야

송기홍: 지역적으로 일반약국과 가축약국과의 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수의사와도 이해관계로 말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약사를 상주시켜보고 하는데 약사는 동물생리를 잘 몰라서 축주와 대화가 되지 못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조속히 일정한 행정방향이 세워져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법만 있고 실행에 옮길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금년 파리약 생산량과 그밖의 신제품 생산 동향은 어떻습니까?

### 금년에 파리약 판매 줄어

박종영: 장마 때문인지 파리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덜 팔렸습니다. 이제는 국내업체에서도 파리약을 합성하는데 약효문제 이전에 파리가 발생이 적어 파리약 판매가 줄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금년 신제품으로는 류코사이토준 예방제

오경록: 신제품 부분은 콕시듬제 일부가 있고 류코사이토준병에 관한 제품이 있을 뿐 특별한 신제품은 없다고 봅니다.

송기홍: 피리메타민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약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대부분이 피리메타민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소규모 양계장만 피해를 입은 셈인데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데 개인이 사서 첨가하는 식으로 한다면 공정성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 항생제 발암물질의 잔류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소비자 단체에서 알았다고 할 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 사육가들도 이제는 약품 남용 안해

오경록: 사육가들도 질병에 대해 선택적 투약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준 향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제도 사육가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일은 생균제제가 신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응도 좋고 매출량도 늘어나 신장될 것으로 항생제 사용보다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항생제 사용이 많은 것은 호흡기 질병 때문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균제사용은 장내세균계통에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약품사용이 줄어드는 원인 중의 하나가 올인 올아웃방법이 늘어나고 과거에는 브로일러 사육기간이 60일이었던 것이 지금은 40일대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육계에서는 아예 백신을 안해도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때 언젠가는 엄청난 피해를 일시에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백신자체에도 문제가 완전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산 뿐 아니라 수입제품도 마찬가지인데 마력백신은 만들어 사용되는지 오래되었지만 금년에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제와 비교를 하는 것은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최근 콕시들패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콕시들패방약의 신제품이 개발된것은 없는지요?

### 콕시들패 사용에 사료공장이 개선 필요

오경록: 콕시들패질병은 백신을 써서 막는 것보다 아직



오 경 록 상무

은 약품을 사용하여 막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나 값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나왔지만 약품가지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판매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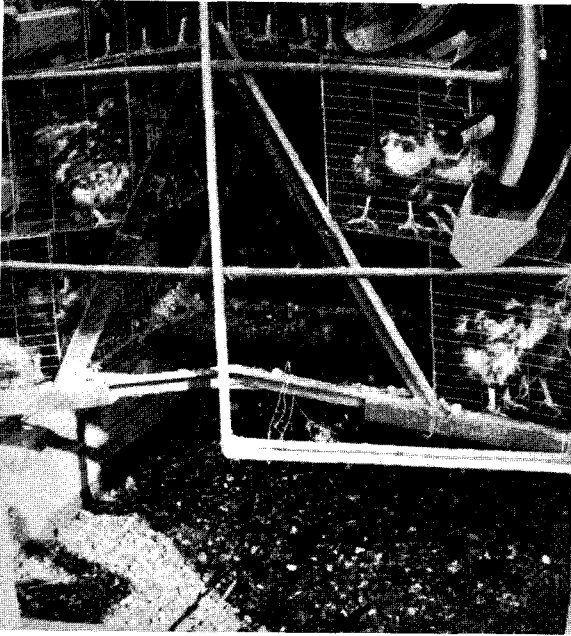
박종영: 외국에서도 항콕시들패백신이란 기술적인 면보다는 사용자치면에서 별효과가 없으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금년에 콕시들패 발생 많았다.

송기홍: 금년에는 의외로 콕시들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의 학회지를 보니까 내성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루어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계통은 내성내지 부분 내성이 10~60%까지 된다고 하였는데 없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문제도 이전 사료회사에서 고려를 해서 몇개월마다 바꾸는 식의 사료생산을 해야 합니다.

박종영: 콕시들패에는 약품이 가장 값싸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단점은 히트 스트레스와 난각색이 변하는 문제입니다.

오경록: 콕시들패제로 사료공장에서 서툴프로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완전히 바꾸는 것보



다 일률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 세일 수준은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생산공정 관리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사회: 다음은 물질 특허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나는 결과하고 앞으로 업계에 나타나게 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물질특허 개방으로 신제품개발 어려워

박종영: 아직은 대리점 계약으로라든지 하여 별문제는 없었지만 점차 개발약품쪽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아직도 동물약품관리가 인체약품과 동일한 약사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인체약과 함께 동시에 실행이 될 것입니다. 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개발품에 주력하는 업체는 많은 어려움이 올 것임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회: 필드에서 약품 사용은 줄고 약품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 꼭 써야될 약품만 사용하고 환경개선을

오경록: 약품가격이 비싸지니까 사육자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환경개선을 통하여 질병도 줄고 불필요한

남용도 최대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약품사용이 줄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브로일러의 사육기간이 단축된 것과 옛날에 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받아들이던 올인올아웃 사육방법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분규등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건비 및 제반 생산비가 상승하면 약품값은 자연스럽게 인상되게 마련 아닙니까?

이제는 꼭 써야 될 약품만 선택해서 사용해야하고 업계에서도 이점을 감안 제품개발에 임해야 할 것이고 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약품 판매면에서 축종별 판매현황은 어떻습니까?

### 양계약품 사용량 해마다 감소

송기홍: 역시 양돈이 제일 많은 다음이 닭 소 순입니다. 양계의 경우는 굵이거나 굵수기가 자동화되어 있어 1인당 관리 수자가 상당히 증가하니까 약을 먹일 시간적 여유와 인력이 없습니다. 니플굽수기등도 약을 안 먹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케이지를 설치할때 약물투약시설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영: 약품업계가 대부분 영세합니다. 86년7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겨 사실상 약품업계는 2분화되어 790여시장 속에서 경쟁을 하다보니 덩짜까지 나오게 되니 어려워졌습니다. 정상적인 판매가 되어야 투자를 계속하여 국제 경쟁력향상에도 대처해 나가고 기술축적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경기가 불안하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워지고 해외업체에게 늘 불리할 따름입니다.

사회: 약품업계도 많은 어려움이 있군요. 지금까지 동물약품 판매량, 비율, 약사행정, 유통, 신제품, 물질특허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특수약품 판매량 크게 증가

송기홍: 금년 특이한 사항은 양어용약품이 상당히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가축분야 약

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축종별 전문사용약품이 없어 부작용이 일어나곤하는데 앞으로는 축종에 맞는 약품개발에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 치료제 보다는 예방약 사용을

박종영: 약값이 상승하면 생산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니까 생산자들은 가급적 환경개선을 서둘러 질병발생을 억제하고 정확한 약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치료제 사용보다는 예방약사용 방법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 식품위생면에서 약품잔류문제 해결되어야

오경록: 앞으로 육용계에 항생제 잔류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일입니다. 법의 단속이 있기 이전에 식품을 생산한다는 책임자로서 해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사

료회사에서도 사료생산시 휴약사료를 다양하게 하여 상품화 하면 생산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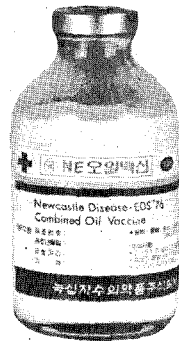
사회: 이런 것이 앞으로 수입개방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실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재도 국내에 협동조합하면, 농협, 수협, 축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이 있는데 이중 농협, 수협, 축협은 농림수산부 산하에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공부에, 소비자 협동조합은 경제기획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개방에 소비자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닭고기, 돼지고기, 향생제가 있어 수입을 해서 먹어야 한다는 압력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육계가 향생제 잔류를 옛날 같이 편리한 대로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약품 업계의 현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88년에는 오로지 생산자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더욱 필요함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느껴집니다. 양계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77**

국내최초로  
오일백신 개발에  
성공!

자매  
품 ND 오일백신  
EDS 오일백신

ND · EDS  
혼합오일백신



NE 오일백신은

1. 면역이 잘되고
2. 면역이 오래 지속되며
3.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NE 오일백신은

500수분 (250ml)에  
₩ 38,000입니다.

NE 오일백신

✚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 수원 ③3423/4